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7. 28

주간 달러/원 동향(7/21~7/25)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연준 당국자의 7월 금리인하 제기 이슈에 따른 달러 약세 속에 그간 일본 참의원 선거 패배 가능성을 반영 내리막을 걷던 엔화의 선거 결과 확인후 엔화 약세 되돌림 영향 등이 반영되며 환율 하락 출발. 이어 엔화 약세 흐름이 반영되며 동조 흐름 견인한 가운데 국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매도 영향 등으로 약보합
- 중반 들어, 미국의 일본과의 무역협상 완료 등으로 위험 선호 탄력 받은 가운데 외국인투자자 증시 순매수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한 양상
- 후반 들어, 미국이 주요국과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 확대 속에 큰 폭 하락 후, 주 후반,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에서 2,700억원 이상 순매수 했지만 결제수요 유입과 한-미간 환율 협상에 대한 경계감 강화 등으로 상승폭 확대한 가운데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이 전반적인 위험 선호 속 달러 약세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본과 EU의 관세 협상 결과에 후속하는 우리나라의 협상 과정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 선호 영향에도 원화 강세 흐름 쉽지 않을 전망
- 여기에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이는 FOMC에 대한 경계감 또한 원화 강세로의 흐름을 제약할 요인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92.1	1,393	1,365.1	1,377.9	-15.1

예상거래범위

1,365원 ~ 1,385원

유로·엔화 동향 (7/21~7/25)



유로화 동향

- 주초, 뉴욕금융시장에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이에 따라 유로화는 상승 출발. 이어, 베스트 미 재무장관의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이유가 없음을 언급한 이후 달러 가치는 97 초반까지 하락. 여기에는 미-중간 상호 고율 관세 유예 가능성 및 미국 성장 둔화 우려가 더해진 점도 약세 압력을 높임에 따른 영향으로 유로 강세
- 중반 들어, 미-EU간 관세 협상에서 EU에 15% 관세 부과 방향으로 합의 근접했다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되며 유로 강세 지속한 국면
- 후반 들어, 미 주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달러가 강세 보였지만, ECB의 금리 동결과 총재의 매파적 발언엔 유로는 상승세 지속 후, 주 후반, 연준 독립성 우려가 완화한 가운데 이시바 거취에 따른 엔화 약세 영향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함에 따라 유로 약세 전환하며 마감



엔화 동향

- 초반,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나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었지만,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가운데, 그 영향의 상당 부분이 엔화 환율에도 미리 반영되었다는 영향 등으로 강세 전환하며 출발.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패배에도, 우려했던 정도의 의석수 감소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정 위험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완화되었다는 평가 속에 수입기업들의 달러화에 대한 저가 매수 등으로 엔화는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국과 전격 관세 합의 소식 및 이시바 총리 거취 부분에 있어 8월말까지 퇴진 표명을 밝히면서 엔화는 약세 흐름 이어진 국면
- 후반 들어,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일부 완화 인식 속, BOJ 금리인상 기대 반영으로 강세 전환 후, 주 후반, 미 고용지표(주간실업청구건수) 호조 및 7월 일본 CPI 2.9%로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엔화는 약세 재전환하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21	1.1788	1.1614	1.1739	+0.011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8.7	148.7	145.8	147.6	-1.1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21~7/2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일본 선거 관련 불확실성에 영향이 전이된 가운데 외국인의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 및 월러 연준 이사의 7월 기준금리 인하 재차 주장 등에 따른 미 국채 금리 하락 추세에 연동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이후 재정확대 우려 후퇴한 가운데 글로벌 금리 하락세에 연동하며 국고채 금리 또한 하락 지속
- 중반 들어, 전일 뉴욕 채권 시장 강세 반영하며 하락 시작했지만, 미국과 일본 관세 합의 소식 이후, 아시아 장에서의 미, 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위험 선호 영향으로 국고채 시장 강세 흐름 제한된 형국 시현
- 후반 들어, 국내 실질GDP 성장을 속보치가 전망치인 0.5%보다 높은 0.6%로 집계 발표되면서 국고채 시장 비우호적 재료로 평가되었지만,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거 순매수하면서 금리 상승세 제한한 국면 시현 후, 주 후반, 트럼프의 직접적 연준 방문 후 인하 압박에도 동결 전망 속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경계심리와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연준 당국자의 7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재차 주장 등 투자심리 개선에 대한 영향 속에 외국인 8거래일 연속 및 기관 순매수 등으로 코스피 3,200선 진입하며 출발. 이어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 심리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에 차익실현에 나서며 큰 폭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일간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시작 후, 차익 매물 등으로 등락 반복한 가운데 소폭 강세 흐름
- 후반 들어, 미국 관세 협상 진전과 반도체 기업 호실적 등의 긍정적 호재에 장초반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는 3,200선을 되돌림시키며 소폭 상승에 그친 가운데, 주 후반, 한-미 무역협상 성과에 대한 촉각 곤두세우며 제한적 움직임 속에 소폭 상승 마감